

세미나 자료 2024-10

2024년 제1차 KICCE 육아정책 네트워크 포럼

유보통합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 영유아 교육·보육의 담론 다시 세우기

일시 ▶ 2024. 11. 20(수) 16:00-18:00

장소 ▶ 레스케이프 8층 이벤트룸

주최 ▶ 육아정책연구소



유보통합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영유아 교육·보육의 담론 다시 세우기

- ❖ 일시 : 2024. 11. 20(수), 16:00-18:00
- ❖ 장소 : 레스케이프 8층 이벤트룸
- ❖ 프로그램

사회 : 육아정책연구소 최은영 기획조정본부장

시간	내용
16:00-16:05	개회 및 국민의례
16:05-16:10	환영사
16:10-16:20	참석자 소개
16:20-16:30	육아정책연구소 주요 연구 현황 - 발표자 : 김아름 연구기획평가팀장
16:30-16:50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 다시 정의하다 - 발표자 :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학과 교수
16:50-17:00	사진 촬영 및 휴식
17:00-17:50	<p>종합토론 (※ 7:10 순)</p> <p><학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한국보육지원학회 <li style="width: 50%;">• 한국아동권리학회 <li style="width: 50%;">• 한국영유아교육학회 <li style="width: 50%;">•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li style="width: 50%;">• 한국육아지원학회 <li style="width: 50%;">• 한국부모교육학회 <li style="width: 50%;">• 한국아동학회 <li style="width: 50%;">•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li style="width: 50%;">• 한국유아교육학회 <li style="width: 50%;">• 한국청소년학회 <p><공공기관 및 유관단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굿네이버스 <li style="width: 50%;">• 아동권리보장원 <li style="width: 50%;">• 유네스코한국위원회 <li style="width: 50%;">•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회 <li style="width: 5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li style="width: 50%;">•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 <li style="width: 50%;">•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li style="width: 50%;">• 삼성복지재단 <li style="width: 50%;">• 어린이집안전공제회 <li style="width: 50%;">• 인구보건복지협회 <li style="width: 50%;">• 조록우산 어린이재단 <li style="width: 50%;">• 한국보육진흥원 <li style="width: 50%;">• 한국아동단체협의회 <li style="width: 50%;">• 한국유치원총연합회
17:50-	폐회 및 만찬

CONTENTS

육아정책연구소 주요 연구 현황

- ▶ 김아름 연구기획평가팀장 1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 다시 정의하다

- ▶ 정선아 교수 13

종합토론

(※ 7:10 순)

- 학회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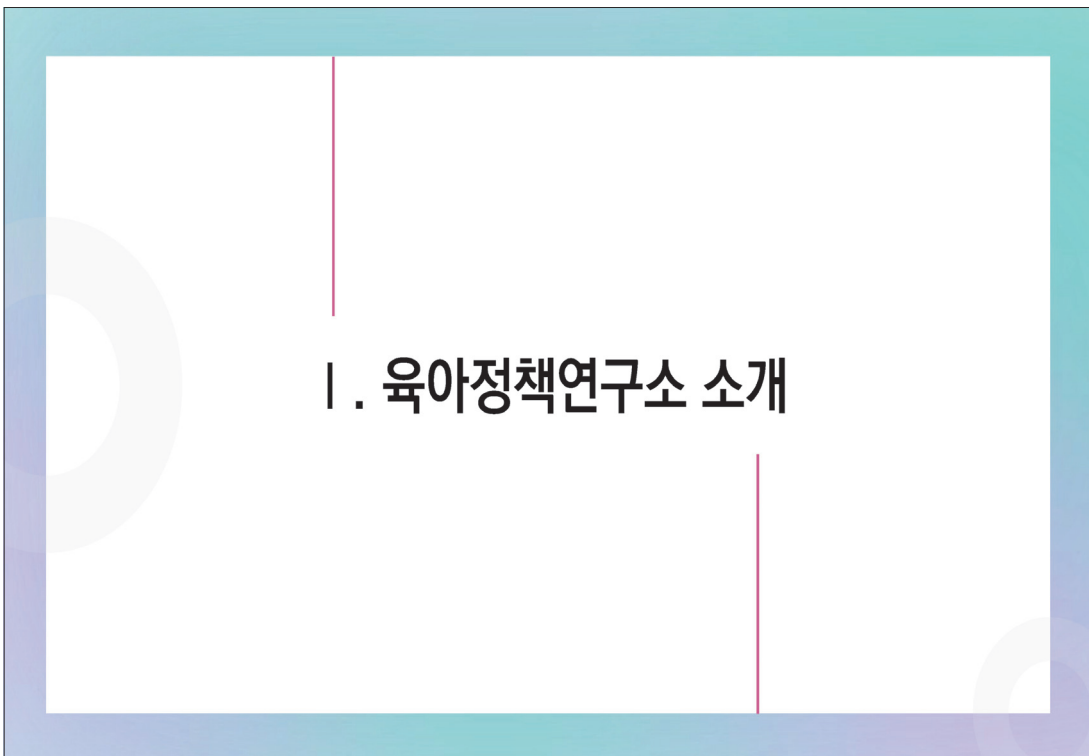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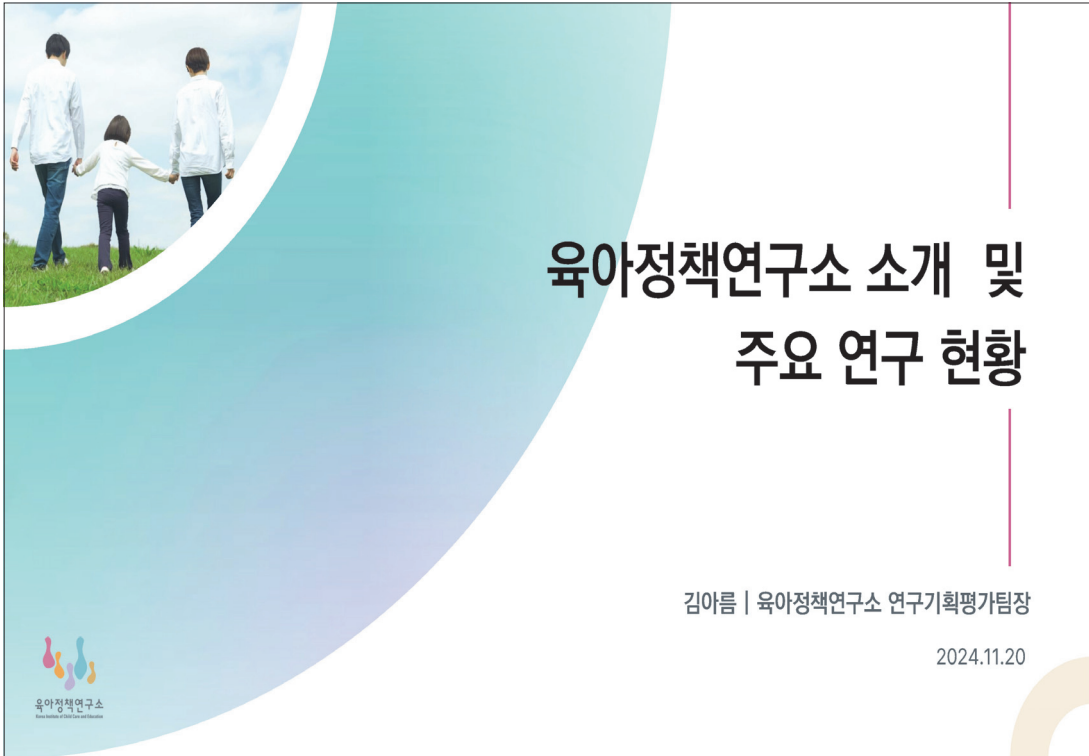
- 한국보육지원학회
- 한국아동권리학회
-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 한국육아지원학회
- 한국부모교육학회
- 한국아동학회
-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 한국유아교육학회
- 한국청소년학회

-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43

- 굿네이버스
- 아동권리보장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 삼성복지재단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인구보건복지협회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한국보육진흥원
- 한국아동단체협의회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육아정책연구소
주요 연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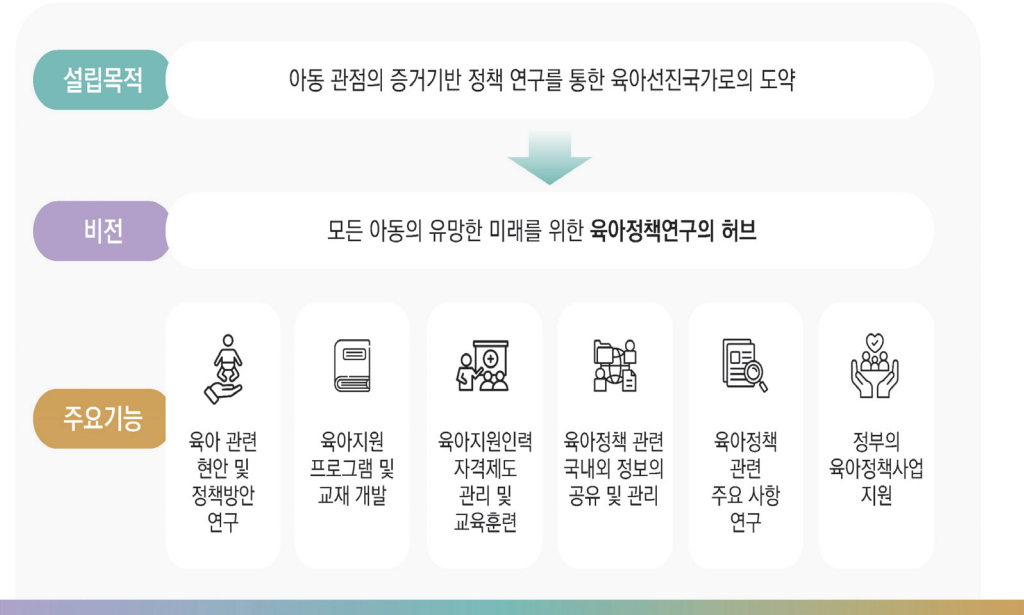
김아름 연구기획평가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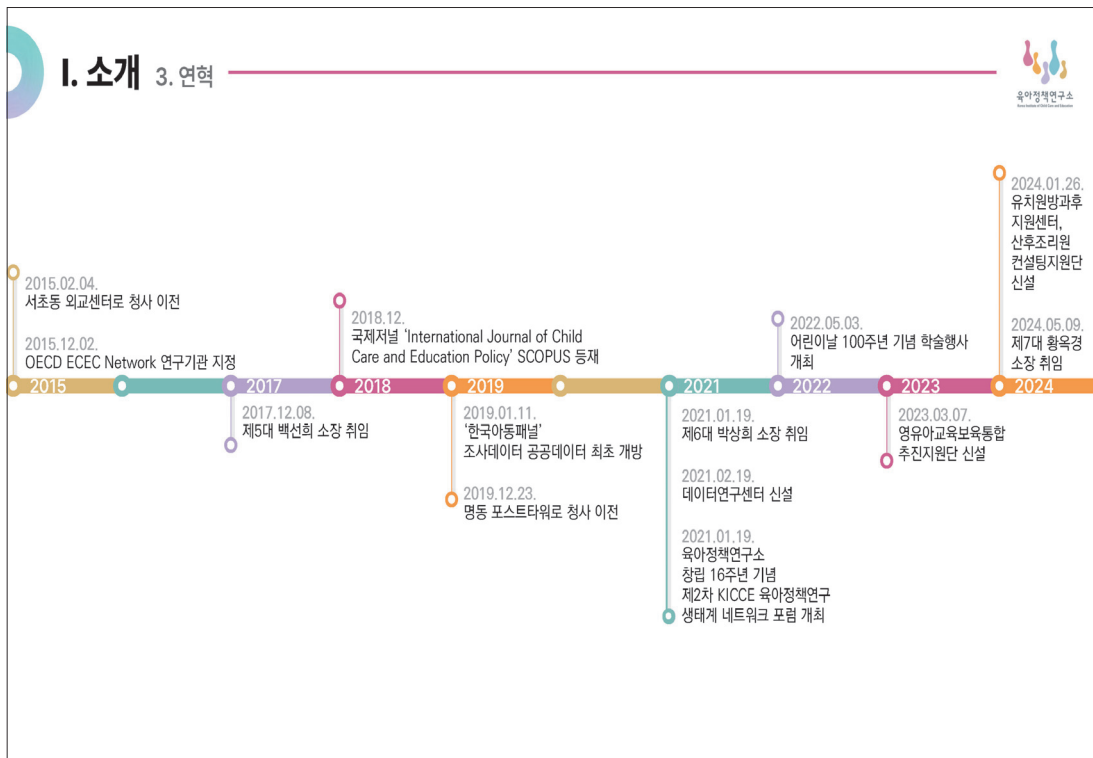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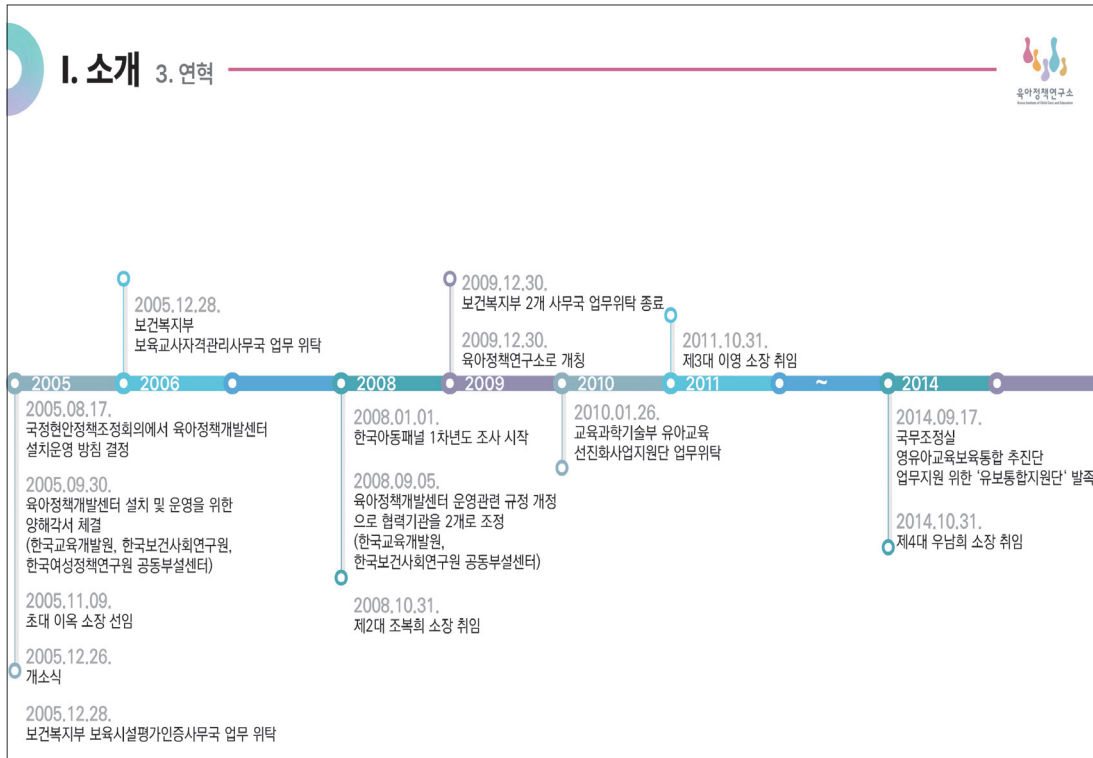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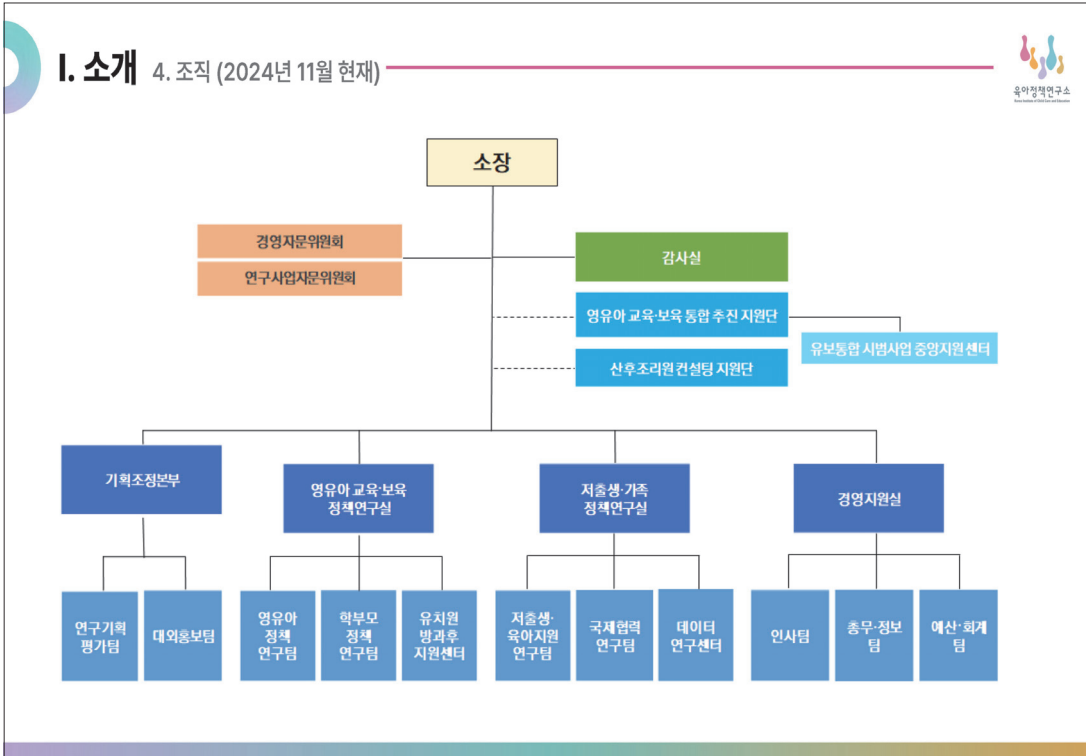
I. 소개 1.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26개)



I. 소개 2. 육아정책연구소의 비전, 목표, 가치







II. 연구 영역

II. 연구 영역



1.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관련 주요 연구

-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 어린이집 평가체계 개편방안 연구
- 보육실태조사(2009, 2012, 2015, 2018, 2021, 2024)
- 유아교육실태조사(2017, 2022)

2. 저출생 및 가족지원 관련 주요 연구

- 저출생시대 육아인프라 추이분석 및 대응방안(Ⅰ~Ⅱ)(2022-2023)
-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2023)
- 평등한 돌봄권 보장을 위한 자녀돌봄 시간정책 개선방안 연구(Ⅰ~Ⅱ)(2022-2023)
- 취약 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Ⅰ~Ⅲ)(2022-2024)
-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석(2020-2024)

II. 연구 영역



3. 영유아 발달 종단 데이터 축적 관련 주요 연구

- 한국아동패널,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한국아동패널 Ⅱ)(2008-계속)
-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2022-계속)
- 코로나 세대(Covid-Generation) 아동의 발달 추적 연구(Ⅰ)(2024-계속)

4. 국제협력 관련 주요 연구

- 캄보디아 유아교육을 위한 보편적 통합교육 증진 방안 연구(2024)
- 유아 인지·사회·정서 국제조사 2주기 수행을 위한 기초 연구
- 동아시아 국가(한중일)의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Ⅰ~Ⅲ)(2018-2020)
-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 분석 및 실행 방안 연구(Ⅰ~Ⅲ)(2018-2020)

Ⅲ. 2024년 현재 연구수행 현황

Ⅲ. 2024년 연구수행 현황



1. 기본과제: 도시 및 농어촌 등 특수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치원 설립 개선방안 연구 외 총 8개
2. 일반과제: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외 총 8개
3. 수시과제: 유아 인지·사회·정서 국제조사 한국형 도구 기초 연구 외 총 5개
4. 연구개발적립금 과제: 영아 부모의 육아기 근무환경 조사 -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가구를 대상으로
5. 수탁과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이행 실태조사 연구 외 총 52개

⇒ 2024년 총 74개 과제 수행 중

IV. 국정과제 관련 연구

IV. 국정과제 관련 연구



1.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기반 구축 및 실행 지원 주요 연구

- 2024년 유보통합 시범사업 실행 지원 연구(2024)
-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련 지방 단위 업무 분석(2023)
- 유보통합을 위한 재원 분석 및 이관 방안(2023)
-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설립 모델 기준 마련 연구(2023)

2. 방과후 돌봄지원 주요 연구

- 특성화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개발(2024)
- 방과후 과정 우수모델 발굴 및 운영 모델 개발(2024)
- 방과후 과정 지원 인력풀 구축(2024)
- 데이터기반 방과후 정책 수립 지원(2024)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서비스 질 제고 방안 연구(2023)

IV. 국정과제 관련 연구



3. 일가정 양립 지원 주요 연구

-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환경 개선방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2023)
- 지식산업센터 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2023)
- 아이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구축연구(2022)

4. 건강한 임신 및 출산 지원 주요 연구

-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2020-계속)
-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2024)
- 산후조리원 서비스 매뉴얼 개발(2024)
- 산후조리원 인력기준 개선방안(2024)
-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2024)

V. 2025년 기본/일반과제

V. 2025년 기본과제



구분	과제명
기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육아정책의 과제: 이민정책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기본	영유아기 건강형평성을 고려한 건강증진 정책 방안
기본	정책변화에 대응하는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지원체계 정비 방안
기본	아동중심 시 기술의 미래의제 도출 연구
기본	기업특성별 일가정 양립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육아친화적 네트워크 거버넌스 강화를 중심으로
기본	유보통합 이후 영유아기 최상의 교육·보육을 위한 과제
기본	영유아 교육·보육 데이터 체계 구축 방안
기본	유보통합 모델 안착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V. 2025년 일반과제



구분	과제명
일반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일반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2025
일반	코로나 세대(Covid-Generation) 아동의 발달 추적 연구(II)
일반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 대책 방안(IV): 통합지원체계 모델 시범 적용
일반	영유아·임산부 건강 분야 국제지식공유사업 모형 개발 및 실행 방안
일반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5(한국아동패널 II)
일반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2025(Korean ECEC Panel Study)

육아정책연구소는
증거 기반 연구 수행을 통해
모든 아동의 유망한 미래를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
다시 정의하다

정선아 교수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 다시 정의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정선아

시작하며: 유보통합의 여정에서

- ✓정책적 의사결정이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법, 교사자격 및 양성, 예산, 시설 기준....
- ✓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현재의 상황(다양한 관계자들의 요구 중심....)
- ✓우리나라 영유아교육·보육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 교육과 돌봄의 통합은 어떠해야 하는가?
 - 영유아교육·보육의 질은 어떠해야 하는가?

I. 유아교육과 보육은 돌봄과 교육의 통합으로

1. 보육과 교육은 무엇인가?

영유아보육법의 "보육"

제 2조 (정의)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보육 이념)

-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 유아교육법에서 교육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교육과정 등) ①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기본법에서 교육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함

인격: 사람 됨됨이

도야: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몸과 마음을 다스려 바르게 함

2. 돌봄(caring)의 재개념화가 필요하다.

<돌봄 용어를 사용하는 정부 부처>

<p>보건복지부</p> <p>노인 돌봄 요양보호 돌봄 간호 돌봄</p>	<p>여성가족부</p> <p>아이돌보미</p>	<p>교육부</p> <p>유치원 돌봄(방과후과정/ 야간 돌봄) 어린이집 돌봄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p>
---	---------------------------	--

사회적 돌봄을 요구하는 사회로의 변화

3. 돌봄 사회로의 전환

- 돌봄은 효율성 중심의 관점에서 생태적 관점으로
 - 돌봄은 효율성의 관점으로 형성
- ↓
- 돌봄은 생태적 관점으로 전환 필요
 - 돌봄은 사회정의, 민주주의의 문제
 - 돌봄이 배제된 사회구조 속에서 돌봄을 받거나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다면적이고 체계화된 불평등(김희강, 박선영, 2021).
 - ‘돌봄윤리’ 돌봄을 주고받는 관계는 인간 삶의 부분이자 조건.
 - 지구 위 생명체의 ‘상호의존성’

- 전통적으로
 - 여성의 일
 - 비전문적인 일
 - 교육(남성·이성적, 과학적)과 돌봄(여성·감성적)을 분리



- 교육적 민감성 요구: 영유아가 보이는 흥미, 관심을 알아차리고 교육적인 안내와 지원
- 관계적 능력 요구: 다양한 상황에서 영유아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적으로 지원하는 능력
- 귀 기울임, 배려, 윤리적 가치
- 반성적 사고 능력 요구: 자신이 실천한 교육적 행위와 교육적 판단을 인식하고 새로운 대안 마련, 실천하고 평가하는 능력(김현미, 권귀염, 2016).

돌봄 재개념화

서로에게 전념하고, 책임지고, 상호의존, 관심을 가지며, 배려하며,
사랑과 같은 윤리적 속성이 담긴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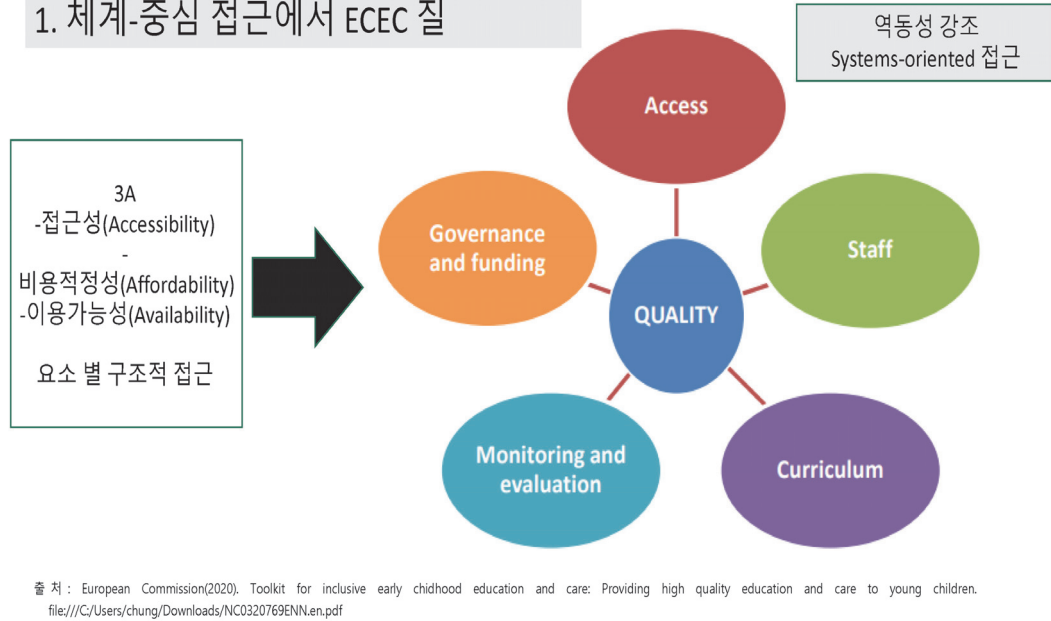
모성적 사유가 필요한 일: 아이를 돌보기 위하여 끊임없이 사유하는 일,
교육적 실천력을 필요로 하는 사유

모든 것에 응답할-능력(responsible-ability)(Murriss, 2022)

돌봄은 교사의 교육적 판단 행위이며, 교육적 지원임.
돌봄은 교육행위이며,
교육은 돌봄행위이다.

II. ECEC의 질(quality)

1. 체계-중심 접근에서 ECEC 질



요소	의미 및 내용
접근성(access)	<p>모든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교육적 성공을 제공할 수 있는 질적 서비스에의 접근성 의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 높은 보육 서비스에의 접근성은 격차 해소 및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함. - 부모 중 특히 모의 노동 시장 진입이 유연하게 보장될 수 있는 공정한 접근성을 의미하기도 함. - 비용 적정성 - 부모 혹은 양육자의 보육 서비스 참여 격려. 의사결정 과정 참여 격려하는 시스템 제공(예. 운영위원회 등)
교직원(staf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을 갖추고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속 교육 제공될 때 - 근로 조건의 개선(임금수준). 교사 대 아동 비율과 집단 크기, 전문적 학습 공동체 제공, 새로운 교직원에 대한 멘토링과 장학 제공
교육과정(curriculum)	<p>아동의 웰빙, 발달, 학습 증진의 가장 강력한 기제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이며, 영유아중심 교육 접근과 보호, 교육이 통합된 교육과정 제공. - 교육과정은 아동, 교직원, 부모와 협력하고, 교직원의 실행을 성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모니터링과 정책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CEC 질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요소임. - 국가수준, 지역수준에서 보육 정책과 현장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정보를 제공함. 예) 실태조사 뿐 아니라 국가 및 지역수준에서 투명한 정보 공시
거버넌스와 공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은 포괄적이고 일관된 공적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므로 아동과 가족의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 - 보편 지원 정책

질을 정의하고 평가하는 두가지 방식

(1) 측정 접근: “차이를 만드는” & “규제적 인증 절차”
영국, 미국 등의 Environment Rating Scale, CLASS

(2) 철학적 접근
뉴질랜드의 질에 대한 다양한 이해 기반.
자기평가
평가, 모니터링, 질적 수준의 고양은 모든 수준의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협상
과 창조의 과정
(Harrison, Andrews, Hadley, Irvine, Waniganayake, Barblett, Hatzigianni, & Li, 2023).

두가지 접근의 결합 시도 (호주)

2. 시스템의 역동성 효과에 주목

- Macro-system: 법적 체계와 지역정치, 사회경제 구조.
 - 미국과 중국의 경우(Hu et al., 2014; Maher et al., 2008) 도시와 지방, 사회경제적 차이가 나타남. 저소득 지역에서 질적 제고 노력이 적음(Yazajian & Iruka, 2015).
- Exo-system: 거버넌스, 설립주체, 인가관리. 질이 높을수록 비영리 조직.
- Meso-system: 개별 기관내에 작동.
 - 기관의 리더십 구조로 micro 시스템 간의 상호관계에 영향 미침.
가정과 협력 체계. (Gibbs, 2022; Sims et al., 2018)
 - 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은 비전과 철학의 공유, 명확한 정책과 절차, 학습 기회와 교직원에 대한 전문성 개발 제공(Granrusten et al., 2018; Rodd, 2013; Strehmel et al., 201).
- Micro system: 기관 활동과 개인 역할과 관계, 교사아동상호작용
 - 교사의 관여와 역량이 질적 수준 제고의 촉진 혹은 방해로 작용.
 - 실천을 변화시키려는 동기가 있는 교사들이 있는 기관에서 질적 수준 제고 노력이 있음.
 - 학력을 갖추지 않은 교사의 문제보다는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 제공에 있음.

Process- Person-Context-Time(PPCT 모델): 영유아의 학습, 발달, 웰빙은 상호 연계되고, 상호의존적, 다중 시스템

3. 시스템적 사고로 질을 바라보기

- Process- Person-Context-Time(PPCT 모델)

영유아의 학습, 발달, 웰빙은 상호 연계되고, 상호의존적, 다중적(nested systems) (Dunlop, 2014)

- 시스템이 질적 평가의 단위

예) 영유아교육의 질은 영유아기관(micro-system)의 교사, 영유아, 또래와 상호작용과 관계에서, 가족과 ECEC와의 가치 공유와 협력(meso-system)에 따라 명확하게 나타남. 간접적으로 exo-system인 ECEC정책, 사회경제적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음.

호주의 평가시스템

III. 유보통합을 넘어선 국가들에서

- ECEC의 효과는 영아기부터

1. 노르웨이

- 사회경제적 차이가 학령기까지 지속되고, 2세에서 차이가 학령기로 이어짐(Sandsør, et al., 2023)

- ECEC 기관 재원 효과.

저학력 부모 아동에게 효과가 있고, 특히 걸음마기 기관 재원은 5학년 언어 검사에서 긍정적 효과, 특히 이민 가정에서 나타남(Corazzini et al, 2021)

- ECEC 경험은 놀이중심, 아동중심, 바깥놀이를 많이 함. 학습하는 법을 배우고, 행동조절과 노력 조절에서 효과적

2. 핀란드

- 2013년 교육부로 통합
- 학령전 1년 의무교육으로
- 보호, 놀이와 학습의 통합. 평화와 따뜻한 관계 중시
- 사회통합, 민주적 참여, 개인발달과 생애 학습, 동반자로서 부모
- 1주 20시간으로 종일제 보육을 제한(부모 모두 고용되지 않을 경우)
- 최대 비용 적용
- 개별 아동 계획
- 5개 학습 영역 "언어의 풍부한 세계 " "다양한 형태의 표현 " "나와 우리 지역사회 " "나의 환경을 탐구하고 상호작용하기 " "나는 자라고 움직이고 발달한다"
- 교수학습: 다학문적 지식, 교육학, 유아교육에 기초한 체계적 목표지향 활동.

3. 스웨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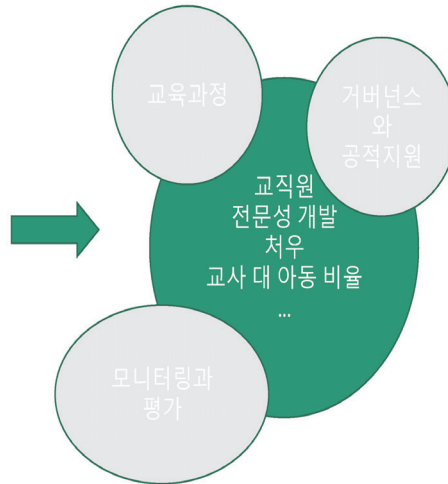
- 학교체제로 통합
- 유아학교는 지식과 가치의 습득이며
- 유아학교를 마치는 시기의 목표: 문해, 수, 과학, 기술, 평가와 발달 (기록작업).
- 평가 강조
- 대학 자격 교사의 책임있는 가르침, 교사 주도, 측정가능한 학습은 매우 적음.
- 지역화 단위에서 감시와 평가 증가
- 보호보다 교육으로 강조 그러나 아동권리, 교수적 전략으로 놀이 강조. 민주주의 강조.
- 기록작업 실천 강조

4. 뉴질랜드, 호주

-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한 질적 수준 제고 노력 중
- 영유아교사 수급 어려움

IV. 우리의 과제

- 돌봄 통합 교육 접근 우선
-> 교사의 정서적 지원과 따뜻함에서 교육 중심 연결하기(경청의 교육학)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스템의 차별 해소
- 교사의 책임있는 가르침-> 전문성 개발, 유능한 영유아교사 수급
- 부모와 협력 -> 양성과정에서 강조



- ✓ “역량있는 시스템”(competent system) 에서 전문성 개발
- 영유아 전문가의 역량 개발이 중요하지만 개인의 전문적 학습, 지식, 기술, 태도만에 있지 않고 ECEC시스템에 있음. 개별 역량은 시스템과 의존함 “역량있는 시스템”(competent system)
예) 교사대 아동 비율 축소와 집단 크기의 축소가 질높은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을 증진함.
- 현직교육에 다양한 학습 요소 포함
: 실천 기반, 코칭, 협력 접근, 새로운 접근에 필요한 성찰 시간 부여
- 영유아와 상호작용의 질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사들 간의 협력적 작업.

✓상호작용 질 증진을 위한 전문성 개발

- 피드백, 자기성찰, 모델링 워크숍, 과정, 현장 지원은 개별 학습 기회의 다양성 제공.

예) 워크숍 먼저 한학기 종도에 걸친 학습 기회제공, 마지막으로 코칭을 통한 실제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지도와 피드백(Buysse et al, 2009).

- 교사가 현장에서 교육적 결정의 효과를 고려하는 성찰이 전문성 개발에 결정적

✓자기 성찰은 질 증진에 효과적

- Schön(1983)의 전문성은 실행중, 실행에서 비판적 성찰로 시작. 자기-성찰은 교사 학습의 주요한 도구

- 교수지원 상호작용은 정교하고, 언어적으로 고급화된 행동(왜 와 어떻게 질문, 주고받는 상호교환, 이전 지식과 통합, 명료화 등).

- 비디오는 언어, 인지적 자극이 되는 상호작용의 심도있는 분석에 더 적합.

유보통합의 방향은 영유아교육·보육의 Quality를 다시 정의하면서 만들어져야 한다.



종합도론



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김진욱 부회장

1	귀 기관의 육아정책 대응 관련 주요 현안
<p><input type="checkbox"/> ‘유보통합 정책 공동포럼: 영유아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3대 쟁점’ 포럼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교사의 자격은 왜 0-5세로 일원화되어야 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직교사의 통합교사 취득 과정은 왜 일과 학습의 병행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가? • 교사양성 과정은 왜 대면교육이어야 하는가? - 2024. 10.18 서울 동자아트홀 -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12개 학술·교육단체가 참여, 한국보육진흥원 유튜브 중계 <p><input type="checkbox"/> ‘웰빙의 관점에서 본 영유아 교육·보육의 방향’ 추계 학술대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교육·보육현장의 일상생활은 영유아의 웰빙을 지향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교육·보육현장의 교육과정은 영유아의 웰빙을 지향하는가? - 2024. 9.27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 	
2	귀 기관과 육아정책연구소와의 협력 방안 제안
<p>개정된 0-2세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연구와 사업</p> <p><input type="checkbox"/> 0-2세 교육과정 관련 연구와 학술대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된 교육과정에서의 영아 놀이와 배움의 의미 - 개정된 교육과정에서의 영아 교사 전문성 <p><input type="checkbox"/> 보육지원학회에서 주관하는 전국 교사배움공동체(800여명 규모)를 통한 확산</p>	
3	(저출생 대응, 유보통합 관련) 육아정책연구소에 바라는 점
<p><input type="checkbox"/> 패널데이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패널데이터 자료 수집 시 종단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변인이 일관되게 조사되길 희망함. 더불어 영유아 일상생활과 건강 관련 수면, 식사, 배변 관련 문항이 꼭 포함되었으면 함. 관련하여 영유아의 일상에 대한 국가주도의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세계 영유아 교육·보육 연구에 아동행복지수 1위 국가인 네덜란드도 포함되길 희망함 <p><input type="checkbox"/> 정책의 일관성과 정합성 - 개정누리과정, 0-2세 영아교육과정과 양성과정 연구의 부조화</p>	

한국부모교육학회

도미향 회장

1	귀 기관의 육아정책 대응 관련 주요 현안
<p>□ 육아정책 관련 연구 및 사업 사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대응 방안 모색 및 육아돌봄 사각지대 분석 및 대응책 마련 - 늘봄 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자체의 사업과 중앙정부 사업의 통합성과 서로 다른 기관의 통합과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대책 모색 - 유보통합에 따른 교사양성 방안, 보수교육 체계 등 구체적인 방향 제시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체계 효율성 모색 	
2	귀 기관과 육아정책연구소와의 협력 방안 제안
<p>〈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과 부모자녀양육 역량강화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특히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한부모, 장애 아동을 가진 가정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이후 늘어난 정서 발달 문제를 지닌 영유아 등에 관한 지원 체계 연구 -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소멸지역과 신도시의 자녀양육 환경 간 격차, 어린이집 등 이용여건 등 지역 편차의 갭을 줄이는 방안 등에 관한 연구 <p>〈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학술대회 개최, 아동학대인식 개선 사업, 출산 장려 캠페인 등 	
3	(저출생 대응, 유보통합 관련) 육아정책연구소에 바라는 점
<p>□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나 사업, 연구 방향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생에 대한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나와 있지만 지자체마다 급여 지원액과 서비스에 차이가 있음. 이 격차를 좁히는 방안 연구 - 앞서 언급한 지역소멸 등 구도심과 신도심간의 영유아지원서비스 등의 차이 해소 방안 - 아동학대 교육 등에 참여하지 않는 부모 등에 관해 어떤 식으로 참여를 유도할지에 관한 연구 - 육아휴직 정책 및 제도 변경후 법개정 등 효과성있는 정책 실현을 위한 연구, 육아휴직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 비전문직 기혼 맞벌이 여성 등 육아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 및 서비스 방안 - 유보통합에 대해 양성 대학, 현장, 부모의 요구를 반영하는 내실화 방안 연구 등 	

한국아동권리학회

안지연 총무이사

1	귀 기관의 육아정책 대응 관련 주요 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2024 춘계 학술 세미나 “공간, 아동권리를 보장하고 있는가”, 유니세프 공동주최 <input type="checkbox"/> 2024 추계 학술세미나 “아동 권리와 회복적 사법:”, 국가인권위 공동주최 <input type="checkbox"/> 학회 포상제도에 대해 지속적이지자 세분화 된 운영으로 학술상, 공로상, 신진연구상, 특별상을 2023년 7월부터 시장하여, 아동권리분야에 전문가 및 활동가를 발굴하여 생태계 조성에 만전 기함 <input type="checkbox"/> 홈페이지 개편으로 아동권리 이해 다각도 증진을 위해 UN아동권리 협약의 이해, 아동친화도시 의 미와 사례, 아동인권 감수성, 아동의 놀 권리 등 아동권리 관련 주요 정보를 언제나 열람할 수 있게 현행화 함(2024년 여름) 	
2	귀 기관과 육아정책연구소와의 협력 방안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제언드립니다. <input type="checkbox"/> 전인성장을 위한 아이중심 돌봄권리(돌봄담론과 교육담론의 차이와 추동관계) <input type="checkbox"/> 돌봄 노동자 및 돌봄 상품화에 관한 이해관계자 인식 및 아동중심 개선방안 연구 <input type="checkbox"/> 주 양육자 쉼권리 및 가족돌봄권리 보장을 위한 30-50세대의 노동정책 연구 <input type="checkbox"/> 여성 양육자 인식개선·법제도화 현황 분석 및 관련 지자체 사례 연구 <input type="checkbox"/> 가정 돌봄 노동자 삶의 질 지표체계연구(기존 삶의 질 연구와의 차이, 기여) <input type="checkbox"/> 아동의 놀권리와 쉼권리 보장에 관한 정책실태(도시와 연령별 차이)와 해결방안 <input type="checkbox"/> 아동 놀권리 지표체계 및 관리방안 연구 <input type="checkbox"/> 양육자 문화·여가·놀이 실태 분석 <input type="checkbox"/> 아동생활세계에 따른 놀이 공간, 놀이 관계, 놀이 시간 분석 - 사업제언드립니다(가제) * 아동 과정 중심 놀이 프로그램 연령별 개발: 시범 프로그램 가능(국립한글박물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연계) * 문화예술로 플러스,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꿈자본 찾기, 꺼내기, 발견하기: 시범 프로그램 * 상호 보살핌이 필요한 부모됨의 힐링 콘서트: 공연 및 토크 콘서트 사업화 가능 	

3 (저출생 대응, 유보통합 관련) 육아정책연구소에 바라는 점

- 비용지원 비중이 아닌 관계 및 양육자의 자긍심과 이에 대한 사회인식개선을 위한 촘촘한 정책 개발 필요.
- 유보통합 관련해서는 교사와 양육자의 서비스차원의 접근, 권한과 책무에 관한 접근도 중요하겠지만 아동중심의 대응이 가장 중요한 시기임. 아동의 돌봄권리는 태어나자마자 발생하는 하는 것으로 교육의 권리와는 또 차이가 있음. 이것을 구별하여서 아동중심 돌봄권리와 발달 관점으로 저출생대응과 유보통합 방안이 이뤄졌으면 함.
- 돌봄의 상품화와 시장화는 우려가 많음, 돌봄서비스가 공공 민간의 시혜적 공급화에 있어 가족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 또 유보 시기 뿐 아닌 유아시기와 전기청소년, 중기, 후기청소년의 전인성장을 위한 지속적돌봄과 교육 정책과 관심이 우리 사회에 필요함 (우리나라는 자살율이 월등히 높는데, 이는 청소년 놀이와 실권리가 무너진 상태에서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것은 불가능 함).

한국아동학회

성지현 부회장

1	귀 기관의 육아정책 대응 관련 주요 현안
<p><input type="checkbox"/> 교육부 영유아교사 양성교육과정 개편 방안 연구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간: 2024. 4 - 2024.12 - 연구참여기관: 한국아동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보육학회 - 연구주요내용: 영유아교사양성교육과정 전공과정 개편 및 마이크로디그리 방안, 현직교사의 통합교사 자격 취득 방안, 실습학기제 적용 방안 	
2	귀 기관과 육아정책연구소와의 협력 방안 제안
<p><input type="checkbox"/> 연구분야 - 장애 위험아 판별을 위한 관찰 척도개발</p> <p>올해는 한국 아동학회와 육아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수행 중인 “장애 위험아 판별을 위한 관찰 척도개발” 연구의 3년 차로 현재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임</p> <p>내년에 개발된 척도를 실제적으로 현장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임</p> <p>이후에도 본 척도가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함</p>	
3	(저출생 대응, 유보통합 관련) 육아정책연구소에 바라는 점
<p><input type="checkbox"/> 단기적 연구가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지길 희망함</p> <p>아동의 발달적 변화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학회와 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희망함</p>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강정원 부회장

1	귀 기관의 육아정책 대응 관련 주요 현안
<p><input type="checkbox"/> 최근 2년간의 학술대회에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영유아교육의 역할을 조망하고 있음. 인구감소, 초연결 사회의 공존, 기후변화 대응, 인권 감수성, 인공지능 활용 역량 등의 주제로 영유아교원과 영유아교육 연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p> <p><input type="checkbox"/> 놀이상담사(1,2,3급)를 양성하여 영유아교원의 심리정서 지원 역량의 강화하고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유보통합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토론회에 참여하여 영유아교원의 전문성과 위상 강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p>	
2	귀 기관과 육아정책연구소와의 협력 방안 제안
<p><input type="checkbox"/> 연구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통합 시대의 영유아교원의 전문성과 위상 강화 정책 연구 - 영유아교원 양성과정과 현직 교원 재교육과정의 교과개요 개발 연구 <p><input type="checkbox"/> 사업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교육현장의 다양한 요구(다문화, 인구소멸)를 반영한 대안적 모델 개발 사업 - 영유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영유아교육현장의 체계 마련(보건교육, 전문상담 인력지원) - 영유아교육현장 연구생태계의 융합적 협력과 연대 지원사업 	
3	(저출생 대응, 유보통합 관련) 육아정책연구소에 바라는 점
<p><input type="checkbox"/>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나 사업, 연구 방향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교육 현장의 교권 확립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 영유아권리 존중을 위한 대사회적 사업(예비부모 교육 포함) - 영유아교육 생태계 지원을 위한 지역기반 협의체 구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사업 - 인구감소 대비 영유아교육현장의 대응 모델 구안 사업(예: 폐원 컨설팅, 2차 직업 발굴 등) - 초등돌봄 교사 양성, 자격관리, 현직 교육 및 관리 체계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김윤희 부회장

한국육아지원학회

배지희 회장

1	귀 기관의 육아정책 대응 관련 주요 현안
<p><input type="checkbox"/> 춘계, 추계 연 2회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최근 육아정책의 현안 분석 및 미래 방안 모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협력과 상생의 시대, 함께 만들어가는 유아교육의 미래’로 다양한 주체 간 협력과 상생에 기반한 교육공동체 형성 및 육아정책의 방안을 모색함 <p><input type="checkbox"/> 연 4회 발간되는 KCI 등재 학술지 <육아지원연구>를 통해 육아정책 관련 연구결과 공유</p> <p><input type="checkbox"/> 매년 하계 연구세미나를 개최하여 유아교육/육아정책 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p> <p><input type="checkbox"/> 학회 임원진이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육아정책 제안에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 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 대책 방안(협력연구), 장애위험 영유아 교사/부모 지원 자료 개발 (2022~2023) -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개발 연구(과학창의) (2024),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발전 방향 연구 (2024) 외 다수 	
2	귀 기관과 육아정책연구소와의 협력 방안 제안
<p><input type="checkbox"/>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 연구 - 영유아교육기관 최초 이용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예비부모의 ‘부모됨’과 ‘양육’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예비부모의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육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놀이 공간 확보 및 운영 방안 연구 <p><input type="checkbox"/>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대회 지원사업 추진 - 육아정책연구소-학회 학술대회 공동 개최를 통한 육아정책 연구 결과 공유 및 확산 	

3	(저출생 대응, 유보통합 관련) 육아정책연구소에 바라는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영유아 중심 육아정책 관련 연구: 예) 영아기 가정 돌봄 강화 방안 <input type="checkbox"/> 영유아교사의 교권 보호를 위한 방안 연구 <input type="checkbox"/> 영유아교육기관 소인수 학급의 원활한 운영 방안 탐색 <input type="checkbox"/> '부모됨'과 '양육'에 대한 예비부모의 우려 원인 분석 및 긍정적 인식 도모를 위한 연구 <input type="checkbox"/> 영유아교육기관 최초 이용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및 육아지원 사업 실행 <input type="checkbox"/> 유초 이음교육 실행연구 및 효과 분석 연구 	

(사)한국청소년학회

송현아 사무총장

1	귀 기관의 육아정책 대응 관련 주요 현안
<p><input type="checkbox"/> KCI 등재 학술지 「청소년학연구」를 월간으로 발행- 본 학회는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학술 단체이나 유아 예비교사 및 부모의 양육태도 관련 연구들도 본 학회의 학술지에 포함됨</p> <p><input type="checkbox"/> 2024년 추계 국제학술대회-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사회적보호 청소년 발달지원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특별히 영유아기 ‘사회·정서발달’ 관련 주제를 포함하여 국제학술대회 성료됨. 청소년기의 많은 문제행동이나 정서적 어려움은 영유아기의 사회·정서적 발달 및 양육환경과 긴밀하게 관련 있기에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영유아기의 사회·정서발달관련 주제를 포함하여 진행하였음.</p>	
2	귀 기관과 육아정책연구소와의 협력 방안 제안
<p><input type="checkbox"/> 한국형 다층구조 사회정서 교육과정의 보편 적용- 한국형 다층구조 사회정서 교육과정의 보편 적용을 위한 연구 및 실천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측면을 심화하여 제안한다. 이 과정은 영유아기의 사회·정서 발달을 조기에 진단하고 선별하며, 이를 기반으로 다층구조의 사회정서 교육 개입을 통해 예방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구현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된다. 또한, 국내외 대표적 연구자 및 기관 간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그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p> <p>1. 영유아기 사회·정서발달의 조기진단 및 선별</p> <p>영유아기의 사회·정서발달은 인간 발달의 중요한 기초를 형성하며,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진단과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아동의 장기적인 학습 및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방안을 제안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화된 진단 도구 개발: 국내 아동의 문화적,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사회·정서발달 진단 도구를 개발하여, 조기 발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 통합 선별 시스템 구축: 보육기관, 지역사회 복지기관, 의료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다각적인 진단 체계를 운영하며, 특히 위험군에 속한 아동을 조기에 선별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도입한다. • 교사 및 부모 교육: 교사와 부모가 아동의 발달 지표를 이해하고 조기 진단과 개입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 다층구조 사회정서 교육 개입을 통한 예방과 지원

다층구조 사회정서 교육과정은 개별 아동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적인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구조는 1차 보편적 개입, 2차 선택적 개입, 3차 집중적 개입으로 나뉘며, 각 층위에서의 개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차 보편적 개입: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사회정서 기술(예: 공감, 자기조절, 협력)을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교와 가정에서 동시에 제공한다.
- 2차 선택적 개입: 위험군에 속하거나 특정 발달 지연을 보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그룹 활동, 상담 프로그램 등 추가적이고 선택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 3차 집중적 개입: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겪는 아동을 위해 개인화된 심리 치료 및 행동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 구축: 교육 개입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3. 국내외 연구자 및 기관 간 연계와 협력

이와 같은 다층구조 사회정서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국내외 연구자 및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주요 협력 전략은 다음과 같다.

- 국제적 비교 연구: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다층구조 사회정서 프로그램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형 모델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보완한다.
- 공동 연구 및 학술 교류: 국내 연구자들과 국제적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협력 연구를 촉진한다.
- 정책적 협력: 정부, 비영리 단체,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연구 결과를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특히 유네스코 및 WHO와 같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제적 지원을 확보한다.
-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역 사회 기반 시설과 협력하여 연구 결과를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회정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위에서 제안된 방안은 한국형 다층구조 사회정서 교육과정이 단순히 학문적 모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국내 아동들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지원하는 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적 지원, 그리고 국내외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3	(저출생 대응, 유보통합 관련) 육아정책연구소에 바라는 점
<p><input type="checkbox"/> 지금까지 저출생 및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적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큰 기여를 해오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다문화가정의 증가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화,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가진 영유아의 증가, 아동 및 교사의 인권증진 필요 등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연구를 지속하여 수행해주실 것을 바라며, 특별히 영유아와 아동·청소년의 데이터 및 연구가 보다 연계되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p>	

- 회복적정의 프로그램- 본 학회의 부설센터인 '한국청소년센터'에서 2022년도부터 소년원 청소년을 위한 회복적정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024년도부터 회복적학교 세우기 프로젝트를 일반 초중학교에 적용하는 등 그 대상을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회복적정의는 공동체성과 사회적역량 함양을 위한 예방적 프로그램부터, 갈등을 경험하는 이들을 위한 대화모임, 또래 중재자 등 다양한 개입이 있고, 핀란드의 회복적정의 프로그램이 '유치원'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 아동권리학회의 학술대회에서도 '아동권리와 회복적 사법'이 그 주제로 선정되는 등 국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에 향후 본 학회와 육아정책연구소가 유아, 교사, 학부모를 위한 회복적정의 접근에 대해 협력하여 연구하고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대한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 취약계층 자녀를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연구- 우리나라 대표적인 아동 자산형성지원제도인 디딤씨앗통장이 2024년도부터 연령 및 소득 대상층이 확대되어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0세부터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기존 12세~17세). 이 사업에 대한 홍보 및 관련 제도가 저출생을 포함한 여러 영유아 관련 지표에 영향이 있는지 등의 연구에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제안드립니다.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박정순 본부장

1	귀 기관의 육아정책 대응 관련 주요 현안
<p><input type="checkbox"/> 저출산 대응 아동중심 사회 실현을 위한 연구·옹호활동 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예방 및 조기발견 강화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역할방안 모색 : 예방옹호기능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 '심층사례전문기관'으로의 역할변화에 따른 사례관리 강화 - 아동의 보편적 신체건강 및 마음건강 증진도모 - 외국인아동출생등록제도 도입 - 아동기본법 제정 등 <p><input type="checkbox"/>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년 예정) 관련 대정부/대국회 정책제언 옹호활동 전개</p>	
2	귀 기관과 육아정책연구소와의 협력 방안 제안
<p><input type="checkbox"/> 아동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연구·옹호활동 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차별'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육아정책연구소 '노키즈존 운영 실태 및 과제 연구(2023)' 관련 후속활동) - 아동기본법 관련 연구 추진 <p><input type="checkbox"/> 아동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연구·옹호활동 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신체건강 증진 관련 연구 및 캠페인 - 아동의 마음건강 증진 관련 연구 및 캠페인 	
3	(저출생 대응, 유보통합 관련) 육아정책연구소에 바라는 점
<p><input type="checkbox"/> 아동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연구 추진</p> <p><input type="checkbox"/> 아동의 건강권(신체건강,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 추진</p> <p><input type="checkbox"/> 디지털·온라인 속 아동권리보장과 관련 심화연구 추진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페어런팅, 디지털 윤리 등)</p>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

1	귀 기관의 육아정책 대응 관련 주요 현안
<p><input type="checkbox"/> 아동정책 연구·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 수립 연구 및 지원: 아동권리보장원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비전을 '모든 아동이 날마다 행복한 나라'로 설정하고, 아동의 비차별과 일상 속 행복 보장 강조. 유보통합 관련 내용도 포함 <p><input type="checkbox"/> 저출생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임산부에게 임신·출산·양육 지원 서비스 정보 제공: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와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여 저출생 문제 대응. 좀 더 폭넓게 부모 교육 기회나 자료를 제공하여 접근성 높일 필요 있음 <p><input type="checkbox"/> 아동학대 예방을 통한 가정 외 보호 방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예방의날부터 1주일간(11.19-11.25) 전국민 대상 교육 및 홍보: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 -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 전국민 릴레이 캠페인 진행: 긍정양육 문화 확산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힘쓰고 있음 	
2	귀 기관과 육아정책연구소와의 협력 방안 제안
<p><input type="checkbox"/> 연구분야: 아동분야 통계 DB 연계·활용방안 모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 기관이 보유한 아동 관련 통계 데이터를 연계하여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정책 효과성을 분석 및 평가. 근거기반 사회정책 마련 위한 기초자료 제공. <p><input type="checkbox"/> 사업분야: 공동 학술대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정책연구소 아동패널 및 영유아패널과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보호통합패널 연계 - 학술대회를 통해 각 기관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활용 방안을 논의 - 국내외 전문가 초청으로 아동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 학술대회 결과물 공유 및 확산 	

3 (저출생 대응, 유보통합 관련) 육아정책연구소에 바라는 점

- 지역격차 해소 위해 인구감소 지역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 수행
 - 저출생 심화로 인해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의료, 교육, 보육 등 필수인프라 감소로 삶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큼. 이에 따라 지역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 아동의 발달상태를 점검하고, 교육, 돌봄 등 효과적인 아동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있음.
-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보호 연구
 - 일반 아동이 오프라인에서는 과보호되고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방임되어 위험에 과다 노출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보통합환경, 교육환경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영유아, 아동, 보호자에게 제공할 필요 있음. 이에 위한 기초자료 마련할 필요 있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김영옥 이사장

□ 개요

- 행사명: 유보통합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영유아 교육·보육을 다시 정의하다
- 일시: 2024. 11. 20.(수) 16:00~18:00
- 장소: 레스케이프 호텔(서울 중구)

□ 기관별 발표 자료

1. 귀 기관의 육아정책 대응 관련 주요 현안

- 영유아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공제사업 및 예방사업 중)
 - 어린이집 안전사고 통계 관리: 공제회 접수 사고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여 통계자료집 발간
 - 안심보육 공모전 운영: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6개 아동 안전교육 영역과 놀이를 활용한 영유아 안전교육을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안전 그림책을 제작해 확대 보급
 -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영유아를 위한 놀이 중심 안전교육 콘텐츠(영상, 교구, 교재 등)를 개발하고, 보육교직원 대상 일반·심화 과정의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또한, 안전사고 사례집과 안전백과를 제작하여 활용
- 영유아 안전문화 조성 및 확산
 - 대국민 안전 인식 개선 캠페인: ‘하지마 대신,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키우는 안전’을 슬로건으로 대중매체(TV, 라디오)와 SNS(Youtube) 광고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
- 정부기관 및 지자체와 연계한 안전콘텐츠 협업
 - 행정안전부와의 협업: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영유아 대상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고, 안전사고 통계를 기반으로 콘텐츠 방향 설정, 검수, 보급 및 홍보 지원
 - 안전콘텐츠 공유: 서울시 어린이집에 배포할 안전콘텐츠(공제회 제작 그림책, 애니메이션, 부모교육 자료 등)를 공유하여 등·하원 안전사고 예방 지원

2. 귀 기관과 육아정책연구소와의 협력 방안 제안

○ MOU 체결

- 우리 회는 10월 14일 육아정책연구소와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 및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MOU를 체결함

○ MOU 주요 내용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연구 수행 및 정책 발굴
- 안전사고와 관련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정책 발굴
- 안전교육 및 안전콘텐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협력
- 포럼, 캠페인 등 상호지원과 참여를 포함한 다양한 교류 협력

3. 육아정책연구소에 바라는 점 (저출생 대응 및 유보통합 관련)

○ 교육과 보육, 돌봄 등의 다양한 정책 연구 필요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을 통해 질 높고 격차없는 유보통합의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균형있는 연구 결과를 통하여 유보통합을 지원하고 육아정책을 선도하기를 바람

○ 영유아 안전사고 관련 연구 확대

-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안전 인식을 개선하고, 영유아 교사가 적극적으로 교육과 보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기대함. 이를 통해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

○ 육아정책개발원으로 성장

- 육아정책개발센터(2005년)로 발족하여 육아정책연구소로 개칭(2009년)하여 크게 발전하였음.
- 앞으로 「육아정책개발원」으로 더욱 크게 성장하여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증추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세계 비교 연구 등도 확장하여 세계적으로도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조우진 감사실장

1	귀 기관의 육아정책 대응 관련 주요 현안
<p>유네스코는 2000년 세계교육포럼(다카르)를 비롯하여,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2010년 모스크바 회의 그리고 2022년 타쉬켄트 회의를 거치며 이 분야에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국제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 국가위원회로서 꾸준한 관심과 정보를 공유하며 국내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p>	
2	귀 기관과 육아정책연구소와의 협력 방안 제안
<p>현재, 교육부와 공동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교육2030-SDG4 협의체 연구 및 활동에 육아정책연구소가 (특히, 세부목표4.2 관련) 참여하여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관련 유네스코 의제에 관한 논의 참여와 분석 측면에서 육아정책연구소의 전문성이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기대합니다.</p>	
3	(저출생 대응, 유보통합 관련) 육아정책연구소에 바라는 점
<p>영유아 보육 및 교육 분야의 정책 플랫폼이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현장, 정부, 학부모, 교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황과 요구를 수용하고, 합리적이며 균형 잡힌 정책 방안을 제시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 주길 기대함. 아울러, 국내 정책 수립 및 실행 경험에 관한 기록과 성찰, 연구를 통해, SDG4 이행 및 관련 유네스코 네트워크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p>	

인구보건복지협회

이삼식 회장

1 귀 기관의 육아정책 대응 관련 주요 현안

- 임신 지연, 난임 등으로 쌍둥이 출생 증가 추세로 양육부모 및 자녀의 다각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쌍둥이 가정 행복 네트워크’** 출범 예정
 - (기존 활동) 쌍둥이 임신·양육관련 설문조사, 부모교육, ‘다둥이링크’블로그 운영
 - (활동 분야) 돌봄, 의료·상담, 연구, 홍보, 정보제공, 입법
 - (향후 활동) 기관별 사업협력 및 사업개발, 법 개정·제도개선 등
 - (출범 및 기념포럼) 2024.11.26.(화) 10:00(컨싱턴호텔)

2 귀 기관과 육아정책연구소와의 협력 방안 제안

- 쌍둥이 가정 행복 네트워크의 참여기관으로 **쌍둥이부모의 양육지원방안 및 쌍둥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 연구, 매년 쌍둥이 포럼 협조**
 - 쌍둥이 연구의 부족 및 일부 연구도 소수의 쌍둥이 부모,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로, 쌍둥이의 대상의 코호트 연구 및 다수의 가정을 대상으로 성장별 육구와 지원방안 연구 필요

3 (저출생 대응, 유보통합 관련) 육아정책연구소에 바라는 점

- 비혼 출산의 증가추세로 비혼가정의 양육환경(주거, 건강, 복지 등), 사회적 차별 등의 전반적 실태 조사 및 법·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심도깊은 방안 연구 필요
 - * 기존 실태조사는 민간차원에서 건강, 소득관련 연구조사만 존재
 - 교육현장에서의 교육활동과정 중 교사의 미인지적 차별 등의 인식 및 점검 필요
- 한국에서 ‘아빠육아’의 사례연구조사를 통한 저출생 대응사업으로의 효과분석 연구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회

김영미 회장

1	귀 기관의 육아정책 대응 관련 주요 현안
<p>□ 육아정책 관련 연구 및 사업 사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 장애영유아의 발달과 교육 특성을 반영한 장애영유아 교육과정 운영 체계 마련 - 장애아표준보육료와 보육료의 차이(현재 약 표준보육료 대비 보육료 73%임.) 지원방안 - 유보통합시 특수교육의 중점 방향 모델: 완전통합 모델 중심으로 - 특수교사 양성방안: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실현 가능한 자격 전환 대책 및 배치체계 	
2	귀 기관과 육아정책연구소와의 협력 방안 제안
<p>□ 연구분야/사업분야 구분해서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어린이집 24년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운영 현황조사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 (행정적, 재정적 및 구조적 차이 등)를 통한 우선순위 과제 정하기 (예 아동 1인당 교육비지원 3배 차이임) - 장애위험군 아동 현황 조사 -앞으로 통합수요 예측 및 지원계획 - 장애아담당교직원 역량교육 	
3	(저출생 대응, 유보통합 관련) 육아정책연구소에 바라는 점
<p>□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나 사업, 연구 방향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장애아 완전통합보육 모델이 장애영유아의 발달에 미친 영향: 긍정성을 살릴 수 있는 통합보육모델 개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여승수 사무총장

한국보육진흥원

나성웅 원장

1	귀 기관의 육아정책 대응 관련 주요 현안
<p><input type="checkbox"/> 저출생, 유보통합 등 정책환경 변화와 더불어 전반적인 추세는 육아(양육, 보육, 교육, 돌봄 등)를 '인구', '생애 주기 전반'으로 연속성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을 지향함</p> <p><input type="checkbox"/> 따라서 영유아 전반을 둘러싼 환경(정책, 기관, 교사, 부모 등)과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들(교육, 발달 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 중임</p> <p style="padding-left: 20px;">※ 공통 부모 교육 및 지역 양육지원, 취약보육(장애·다문화) 교직원 및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 교사 연수 및 심리 건강 지원(고충처리센터), 기관 질 제고를 위한 자율 관리 및 컨설팅 지원 등</p>	
2	귀 기관과 육아정책연구소와의 협력 방안 제안
<p><input type="checkbox"/> (연구분야) 한국보육진흥원은 시범사업, 효과성 분석, 정책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육아정책연구소의 정책적 연구와 한국보육진흥원의 실증적 연구로 제언에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실현 및 연계성 확보할 수 있을 것임</p> <p><input type="checkbox"/> (사업분야) 정책 연구가 정책 수행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을 것임</p> <p style="padding-left: 20px;">※ 영아기/유아기 각 발달에 적합한 지원을 위한 협력(부모교육, 발달지원 등), 교사 연수의 효과성 및 향후 발전 방안 등</p>	
3	(저출생 대응, 유보통합 관련) 육아정책연구소에 바라는 점
<p><input type="checkbox"/> 유보통합에 따라 향후 통합기관 마련, 통합교사 배출 등의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 현장과 부모의 수용도와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연구들이 지속되기를 기대함</p> <p><input type="checkbox"/> 또한 저출생과 관련하여 기관과 영유아 수는 감소하고 있음. 교사의 전문성과 부모-영유아의 편의성·안정성 등을 위해 기관 수급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기준 마련을 제안함</p>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 〈(사)한국놀이치료학회〉

이영애 회장

다음 내용은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보다는 (사)한국놀이치료학회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합니다.

1	귀 기관의 육아정책 대응 관련 주요 현안
<p><input type="checkbox"/> 육아정책 관련 연구 및 사업 사례 등 각 육아정책 시행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p> <p>1) 육아 지원 사업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중 “양육코칭센터”에 셀프점검 코칭 APP 임대 및 영상관찰코칭 프로그램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용산구육아종합지원센터 등과 MOU를 맺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2025년부터는 ‘영아-부모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p> <p>2) 보육 지원 사업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등과 MOU를 맺고 보육관련 사업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p> <p>3) 아동지원 교육부 ‘놀이학교’와 MOU를 맺고 초등1-3학년 대상 ‘심리정서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p>	
2	귀 기관과 육아정책연구소와의 협력 방안 제안
<p><input type="checkbox"/> 연구분야/사업분야 구분해서 작성 〈연구〉 다음과 같은 연구주제로 한국놀이치료학회와의 공동연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p> <p>1) 부모 대상 자녀양육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심리지원체계 관련 연구 예1) 부모력이 낮아지고 있는 요인과 육아부담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예2) 영아-부모 상호작용 증진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예3) 방임유발 요인 관련 연구</p> <p>2) 영유아 발달 및 사회정서발달 지원 관련 연구 예) 코로나 이후의 변화 및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방안</p>	

- 3) 다문화 가정 영유아 발달 및 사회정서발달 지원 관련 연구
- 4) 빈부격차, 디지털 소외 및 학습격차에 따른 영유아 발달 및 사회정서발달 지원 관련 연구
 예) 현재의 영유아들은 디지털 native라고 볼 수 있음. 이런 영유아들에게 과다노출 뿐 아니라 결핍도 발달 및 심리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가이드라인 없는 디지털 과다 노출 및 결핍이 영유아발달 및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보임.
- 〈사업〉
- 1) 영아-부모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2) 영유아 교사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예) 힐링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3 (저출생 대응, 유보통합 관련) 육아정책연구소에 바라는 점

-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나 사업, 연구 방향 등
- 1) 부모대상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사회시스템 변화와 더불어 양육자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 및 지원 사업이 필요해보입니다.
- 2) 교사대상
 저출생으로 인해 자기자녀 중심의 보육에 초점을 맞춘 부모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보육 및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이를 대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아 퇴직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모 및 교사 대상 시민권을 기반으로 한 아동 인권 관련 감수성 파악 및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해보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담당할 주제이기는 하지만, 육아정책연구소에서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경숙 회장

1	귀 기관의 육아정책 대응 관련 주요 현안
<p><input type="checkbox"/> 유보통합 관련 현직 보육교사의 통합교원 자격 전환,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지원비용 격차해소, 관리체계 일원화 및 재정통합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p> <p><input type="checkbox"/> 보육사업안내 내용, 개정 및 규제 완화</p> <p><input type="checkbox"/> 2025년도 보육예산 증액: 영아보육료 예산 증액,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율 상향 등</p>	

2	귀 기관과 육아정책연구소와의 협력 방안 제안
<p><input type="checkbox"/> 연구분야: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교원자격 양성체제 개편, 영아반 급식비 지원, 유아반교사 인건비 지원율 상향, 유보통합 과정 중 설립주체에 대한 유형분리 기준, 지자체 특수보육시책사업 예산 확보</p> <p><input type="checkbox"/> 사업분야: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개선 방안</p>	

3	(저출생 대응, 유보통합 관련) 육아정책연구소에 바라는 점
<p><input type="checkbox"/>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나 사업, 연구 방향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체계 일원화 및 재정통합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지원 - 저출생에 따른 어린이집 폐원에 대한 대응 및 대책 -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시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현안사항 개선 - 유보통합 진행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연구 및 보완 등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김애순 이사장

1	귀 기관의 육아정책 대응 관련 주요 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유보통합 해외 사례 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6월 : 일본 '인정어린이원' 4기관 방문 - 2024년 6월 : 대만 '교육부', '유아원' 기관 방문 <input type="checkbox"/> 유보통합 설문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5월 : '교육중심 유보통합 1차 설문 조사' - 2024년 6월 : '교육중심 유보통합 2차 설문 조사' <input type="checkbox"/> 국회 토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7월 : '교육중심 유보통합을 위한 국회 토론회' - 2024년 10월 : '표준유아보육교육비 산정 기준 쟁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input type="checkbox"/> (가칭)영유아교육법 제정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4~7월 : 법무법인 동인 용역 연구 <input type="checkbox"/> 국회동의 청원(진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11월 :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국회 동의 청원 	
2	귀 기관과 육아정책연구소와의 협력 방안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연구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원화 통합(0~5세), 이원화 통합(0~2세, 3~5세) 비교 연구 - 유아교육보육비 지원 구조 -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방식 - 사유재산(교지, 교사) 이용 보상 체계 연구 - 사립학교 운영의 독자성과 관리기관의 지도 감독 	
3	(저출생 대응, 유보통합 관련) 육아정책연구소에 바라는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동등한 비율로 유아교육, 보육 연구 <input type="checkbox"/> 기관 연구위원 유아교육 전문가 확대 <input type="checkbox"/> 정부 지침을 수용한 연구에서 벗어나 전문가 입장에서 유보통합 연구 진행 <input type="checkbox"/> 교육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과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성 	

2024년 제1차 KICCE 육아정책 네트워크 포럼

**유보통합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
영유아 교육·보육의 담론 다시 세우기**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